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영화 '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임과 동시에 응당 있어 야할 아름다운 값어치들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작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시가 죽어가는 시대'로 규정한 이창동 감독은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장면은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삶 주변에 흔하게 널부러져 있는 잔인한 일상, 심지어는 더욱 큰 고통으로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가야 하는 간병인 할머니 미자(윤정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시 한 편이 탄생하길 바라는 관객의 편견을 철저하게 깨부순다.

시를 써보고 싶어 '아름다운 것' '예쁜 감정'을 찾으려는 그녀에게 시는 도무지 접근하기 어려운 먼 이야기일 뿐이다.

트의 연가곡집 '겨울나그네'의 '보리수'이다.

흔히 가곡의 왕으로 불리우는 슈베르트의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곡집으로 원 제목은 '겨울 여행'이지만,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겨울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일반화 되었다. 총 24곡 가운데서도 '보리수'는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다.

'겨울나그네'의 가장 역사적인 두 녹음은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와와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음반이다. 둘의 음반은 아날로그 시대 최고의 겨울나그네 녹음으로 가수 목소리의 음색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뿐 완성도와 감동 어느 하나 빠진 곳이 없는 금자탑을 쌓아올린 녹음들이다.

영화 '시' 中 슈베르트 '보리수'

진정한 예술은 삶이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그녀의 삶에 손자의 성폭행 자살 사건 연루라는 큰 사건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늙은 본인은 감당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깨닫는다.

결국 시는, 예술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주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네스의 노래' 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잔인하도록 광범한 풍경들과 어울려 지며 가슴을 파고드는 묵직한 감동을 남긴다.

음악과 사운드를 극도로 배제한 이 영화는 심지어 엔딩타이틀이 오를 때에도 음악을 쓰지 않고 흐르는 물소리만 들려줄 뿐이다. 철두철미하게 음악을 배제하여 일상의 건조함,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삶의 잔인함을 표현하려는 감독의 의지가 지나치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이 작품에도 클래식 음악이 등장한다. 두 명의 시인을 환영하는 술자리에서 모임 회원이 직접 부르는 슈베르

그러나 정작 소개하고 싶은 녹음은 따로 있다. 바로 장애인 성악가인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음반이다.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로 세상에 태어나 그의 키는 1m 32cm밖에 되지 않으며, 손가락은 양손을 합쳐 7개뿐이고, 손과 발은 아예 뒤로 꺾여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장애를 딛고 오늘날 독일 최고의 성악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공연 상황을 보는 것은 때로 관객에게 극도의 가슴 아픔을 요구한다. 처절하게 망가진 그의 육체가 아름다운 노래를 뽑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음악이 주는 감동을 넘어 그의 삶이 곧 음악이요 예술이 아닐까 반문하게 되는 것이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반주로 크바스토프가 노래하는 슈베르트 보리수를 듣다 보면, 예술과 그 감동은 삶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진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독립영화감독, 음악칼럼니스트)



을 한해 '문화 감동'을 달래주던 단비 같은 역할을 했던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의 '인문학 강좌 II' 강의 내용이 담긴 책이 출간된다.

광주일보와 시립미술관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 향기를 전달해주기 위해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지난해 열렸던 '인문학강좌 I'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V.탈리아 교수, 김선정 2005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등 국내외 유명 강사들이 다양한 예술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순효상 감독 등이 강사로 참여한 올해 '인문학 강좌 II'도 매해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강사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인문학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장을 만들었다.

'광주미학을 창조하자'를 주제로 10차례 열린 '인문학 강좌 II'는 광주의 건축, 춤, 무용, 전통놀이, 회화, 풍수, 음식, 차 등 다양한 분야 속에 담긴 '광주의 미학'을 섬세했다는 평을 받았다.

시립미술관은 내년 1월께 참여 강사들의 생생한 강의 내용과 관련 사진 등을 담은 책자 500권을 만들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에는 그동안 강사로 참여했던 문화 전문가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겼다. 먼저, 지난 3월 이화여대 김우창 교수가 '문화의 전통과 삶의 일체성'(3월 17일)을 주제로 강의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수록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순효상 공동감독과 조용한 전 원광대 교수가 각각 '광주의 전통 건축미학'(4월 14일)과 '호남의 명문가와 풍수'(6월 16일)를 주제로 탐구했던 호남의 '땅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성황리에 마무리한 '인문학 강좌'의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내년 1월 출간된다. 사진은 이애주 서울대 교수의 강의 모습.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인문학강좌 II' 엮어 출간

건축·회화·풍수·소리 등 명강의 육성·사진 담아

의 미학'도 책에 기록됐다. 호남의 집터와 건축물에 담긴 남도민의 정서와 생활을 이해하고, 지형학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또 전남대 김광복 교수의 '소리의 미학'(5월 19일), 서울대 이애주 교수의 '굿과 춤의 미학'(10월 13일), 부산대 채희환 교수의 '대동놀이의 신명과 생성, 생명 미학'(11월 17

일)도 책을 수놓는다.

호남 대표 화풍인 남종화와 유배지에서 꽃피운 유배 문화는 간송미술관 최완수 관장('결계 정선과 진경산수화'·7월 14일)과 조선대 이종범 교수('낙향과 유배, 교유와 소통의 미학'·8월 18일)가 맡았다. 이들은 정선 이후 추사와 소치, 의재 허백련에 이르는 전통 수묵화의 정신과 아름다움, 신안, 진도,

완도 등지에서 꽃피운 다양한 유배 문화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이 밖에 사찰 음식의 대가 대안스님('음식·통섭의 미학'·9월 22일), 초의선사의 맥을 잇고 있는 백련사 주지 여연스님('차의 미학'·12월 15일)이 강의했던 호남 음식과 그윽한 차문화도 곁들여진다.

광주시립미술관 황영성 관장은 "이번 강좌는 시민들에게 고품격 문화를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수준 높은 문화 교육의 장이었다"면서 "호남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책에 담아 더욱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613-53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림 속에 소리가...음악 속엔 그림이

우제길 미술관 29일 't=k' 초청 작곡 발표회

그림 속에 소리가 있고, 음악 속에 그림이 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우제길 미술관이 작곡 동인 't=k'을 초청 작곡 발표회를 갖는다. 29일 오후 8시 우제길 미술관.

이번 발표회는 세명의 작곡가들이 '빛'을 소재로 다양한 작업을 해온 우제길 화백의 그림을 보고 얻은 영감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공연이다.

작곡가 김승일(조선대 명예교수)씨는 검은 바탕에 도도한 존재감을 드러낸 빛의 모습이 인상적인 우화백의 199년작 'Work 93-20Q'를 모티브로 작품을 발표한다. '어둠의 심연으로 임태한 섬광의 빛'이



'리듬 73-2A'



사진 왼쪽부터 우제길·김승일·김무섭·김선철

라는 제목으로 피아노(김대일)와 정통악기인 징(안연섭)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김선철씨가 작곡한 '바이올린 곡주를 위한 침묵의 빛'은 '리듬 78-5B'(1978년작)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아씨가 연주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28일 사업 설명회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성대)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2012년 지역협력형지원사업 공모 설명회'를 연다.

이번 지역협력형지원사업 예산은 17억3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7000만원 늘었고, 특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분야가 확대·다양화됐다.

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문화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등 네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원규모도 1건당 5000만원~2억 내외로 늘었다.

올해까지는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참가했던 데 반해, 내년부터는 상주하지 않더라도 공연장과 MOU를 체결한 공연단체들에게도 공모 참여 기회를 줄 예정이다.

문의 062-670-74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자본 음식배달 사업자 모집

하루 50그릇 배달시 월 약 400만원
예상수익 대박사업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새롭고 신선한 먹거리...



배달품목

소갈비해장국 | 뼈다귀해장국 | 소머리곰탕 | 우거지해장국
황태해장국 | 육개장 | 갈비탕

감자탕류 : 소갈비감자탕 | 뼈다귀감자탕 | 생오리감자탕



메뉴 취급점 모집

식당 | 분식점 | 배달전문점 | 야식집 | 사우나 | 골프장 등
저희 메뉴가 필요한 업소에서 전화주시면 샘플을 맛보시고
필요한 수량만 주문해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맛 처음이야~" 이쁜아짐 때문에 장안이 시끌 벅적합니다.

이쁜아짐

체인사업본부 代) 062-265-8900
본부장 직통 010-9885-202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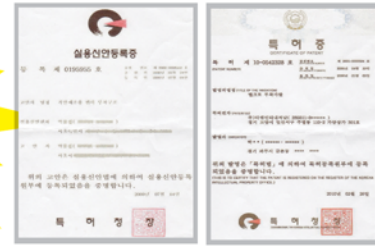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

2011년 신제품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